

敎養敎育과 文學

韓 承 玉

(崇田大 國語國文學科)

文學作品이 단순히 감상 위주로 강의되고 학생들은 그것이 문학을 독해하는 전부인 양 착각한다면 그것은 敎養敎育으로서의 문학敎育에 있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문학작품은 선정이나 강의에 있어서 여기서 제시하는 形式과 道德的·社會的 기본 요소들이 價値基準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1. 文學과 敎養

대학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고등교육 기관인 동시에 교양인을 길러 내는 최고 학부이기도 하다. 이율배반적인 두 요구를 하나로 조화시키면서 교육을 병행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띤 교육장이기도 하다. 이 개념하에는 전문인으로서의 기술敎育뿐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자질에 필요한 교양敎育도 포함된다. 창의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대학인에게는 교양敎育이 어느 교육 못지 않게 중요하다.

문학은 예로부터 전문적인 학문으로서보다는 교양과목으로 더 많이 인식되어 왔다. 교양에는 문학敎育이 필수적이었다. 서구뿐만 아니라 동양,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문학을 필수 과목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문학을 餘技로 보려는 경향도 이에 근거할 것이다. 정제에 나가 정사를 돌보는 사람들도 풍류를 즐기며 문학을 벗할 줄 알아야 제 구실을 하였다. 과거

시험에서도 시문을 짓게 하여 그의 정치 역량을 측정하였다. 옛날에는 정치까지도 문학적 능력에 따라 평가한 셈이 되는 것이다. 文學即餘技란 생각은 근래까지도 변함 없이 지속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문학이 하나의 전문직업이나 특수한 전공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개화기를 거치고 난 한참 후였다. 문학사적으로 볼 때, 전문직업이란 생각으로 문학을 창작한 것은 1930년대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광수가 1910년대부터 활발히 문학활동을 하던 우리 문단을 주도할 때도, 그는 문학을 餘技로 생각했었다. 이광수는 문학을 전문직업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상 전달 수단으로 택했었다. 1920년대 문인은 대부분 습작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렇다고 1930년대 문인 모두를 직업문학인으로 보는 데도 난점이 따른다. 생계의 수단으로서보다는 애국이란 사명감 때문에 목숨을 걸고 문학을 한 예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때의

문학은 교양으로서의 의미보다는 민족정기의 고취 및 선양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

문학은 이와 같이 시대에 따라 존재 양상이 달랐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인간의 정서와 도덕, 윤리에 공헌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곧 인간 속성의 모든 면을 관장한다는 점에서이다. 문학은 인간 전체를 수용하여 말하고, 인간을 감동시키고, 심성을 올바르게 배양시킨다. 곧 문학은 다른 어떤 학문보다도 인간의 전 인격에 관여하면서 그 본질을 수행해 나간다는 말이다.

문학이 예로부터 교양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 되었던 이유도 이에 근원한다 할 것이다. 문학은 우리에게 인생을 보는 혜안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인간을 진실되게 볼 수 있는 마음을 생생한 체험을 통해 감동적으로 체득시키면서 세상을 정직하게 대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문학과 교양은 위와 같은 점 이외에도 여러 면에서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 온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문학과 교양의 관계를 새삼스럽게 논하는 것은 문학의 존재 이유를 다시 강조하려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대학교육의 병적인 현상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는 대학교육에서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실에 있어서는 전문직업인 양성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인문과학 분야는 학문 자체가 일반 교양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에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공학이나 자연과학, 혹은 상학계통은 교양교육은 거의 외면한 채 전문직업인 양성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는 인문학과에서까지도 학문을 학문으로서가 아닌 취직의 도구로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 외국어의 경우가 특히 그러하다. 이러한 병적인 현상은 하루 이틀에 걸쳐 시정될 성질의 것도 아니려니와, 어떤 한 부분에서 고친다고 곧바로 교정될 현상도 아니다. 대학 자체로서만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사회 전체적인 구조적 변화가 없는 한 요원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이렇게 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만 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오늘의 현실이다. 교양교육으로서의 문학이 지니는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주장하여야 하는 이유도 이에 있다. 대학인은 기술자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창의력 있는 참신한 지도자가 되어 그 기술을 인류를 위해 옹계 쓸 수 있어야 한다. 상식 있는 창조적 인간으로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역군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양교육의 중요성이 이리할진대, 차제에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으로서의 문학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고구해 본다는 것은 의의 있는 일이라 하겠다.

2. 敎養國語 敎科내용 再編成의 필연성

여기에서는 교양교육으로서 대학 교양교육의 기초이며 핵심이 되는 '대학국어' 과목에 관해서만 제한적으로 논하려 한다. 그 중에서도 현대 문학에 국한시키기로 한다. 문학 전반에 관해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자칫 공허한 이야기에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현하 대학 교양교육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학생들의 대학에 대한 욕구를 대학 교양교육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양교육은 대학 1학년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학의 교양교육이 고등학교 교육의 반복이거나 어찌 보면 그보다도 질이 떨어져 그에 대한 실망이 만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내용은 물론이고, 교수의 수업 자세나 질 또는 대단위 교실에서 100여 명이 넘게 받아야 하는 수업 단위, 그에 따르는 강의의 부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위의 문제점은 모두 고쳐져야 할 것들이지만, 대학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기에 하루 아침에 개선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특히 교수수의 부족과 시설 부족은 경제적 여건과 함께 우리나라의 현실정도로 보아 개선이 어려우며 각 대학은 이 어려운 여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교과내용만큼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대학 자체내에서 개선할 의지만 있다면 개선 가

능한 항목이다. 현실적으로 대학 교양국어 교육에 있어 교과내용은 대학 신입생들의 대학에 대한 욕구나 기대에 부응하게 해주는 관건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의 불만은 무엇보다도 교육내용에 대한 불만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교육내용이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과 별 차이가 없을 때 느끼는 대학에 대한 실망은 심각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이 점은 누차 지적되어서 몇 대학에서는 이미 교양국어의 내용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이화여대, 서울대, 강원대 등). 그러나 이러한 몇몇 대학의 시도는 그 전체 조건의 어려움으로 하여 일반 대학에 즉시 적용될 성질의 것이 못 될도 사실이다. 여기서는 그 전 단계 시도로 가능한 개선책을 찾아보려는 것이 본래의 의도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은 교양국어에 실려 있는 작품의 내용이다. 대부분 교양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 내용은, 현대문학의 경우 상식적이고 고무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상식이라기보다는 타성이라는 말이 맞을 것이다. 1960년대나 현재나 변함이 없다. 시의 경우 육당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녀에게」나 주요한의 「불노리」가 문학사적 맥락을 구실로 필수적으로 선정되고, 소설의 경우 이광수, 김동인, 현진건, 염상섭 등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이들 작가가 들어가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이들 작가는 현대문학의 지평을 열어 준 핵심적인 인물들이다. 문제는 이들의 작품이다. 이들의 작품 중 교과서에 실리는 것은 소위 말하는 대표작들이다. 「무정」, 「감자」, 「광화사」, 「배따라기」, 「표본실의 청개구리」, 「술 권하는 사회」, 「불」 혹은 나도향의 「빙어리 삼룡이」 등 그들 작가들의 대표작인 동시에 현대문학의 정작으로 손꼽히는 작품들이다. 그리고 대부분 교과서의 경우 선정 작품의 발표연대가 식민지 시기이다. 그 이후 해방 이후에 해당하는 작품은 시나 소설 모두 몇 편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다. 시의 경우 김춘수와 김수영이 들어가고, 소설의 경우 김정환의 근래 작품이 들어가는 정도이다.

이들 1900년대 작품들이나 1920, 30년대 작품들은 고교에서 이미 익숙하게 다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특히나 이들 식민지 시대의 유명작가들의 대표작은 고교생이면 누구나 많이 접해본 작품들이다. 우선 작품 내용부터 식상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교양국어 강의시 작품 해석을 색다르게 해 주는 것도 아니다. 문학을 전공하는 그 분야의 전공교수가 맡는 반은 그레도 사정이 나올지 모르나, 고전문학이나 국어학을 전공하는 교수가 맡는 반은 오히려 실에 있어서는 고교에서보다도 못한 내용을 강의할 수밖에 없다. 심한 경우에는 시는 한번 읽고 넘어가고, 소설은 집에서 읽어 보라고 하고 감상문 제출을 레포트로 내주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런 것이 현실일진대, 대학 1학년생이 문학 교육에 대해 나타내는 불만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교양국어로 논설문이나 딱딱하게 강의하면서 한 학기를 보내야 한다면, 학생은 졸업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배워야 하고, 자연 대학에 대한 불만은 쌓일 수밖에 없다.

문학은 죽은 비유를 가장 싫어한다. 이미 상투어가 된 술어를 혐오하는 것이다. 문학은 일종의 ‘낯설게 하기’이다. 사물을 새롭게 보게 하는 신기한 요술상자나 다름 없다. 우리가 매일 습관적으로 대하는 사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해주는 역할을 문학이 해준다. 대학에서 가장 필요한 창의력은 사물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볼 때 생성된다. 이런 속성을 지닌 문학이 진부의 대명사로 전락하였다던 그것은 이미 문학이 아니라 죽은 시체일 뿐이다. 문학교육이 문학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다시 찾으려면, 무엇보다도 참신하고 신선한 매력을 다시 찾아야 한다. 교과내용의 재편성이 요구되는 필연성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3. 文學史的 觀點에서의 作品 선정

대학이 아카데미화해야 함은 필연이다. 원리를 탐구하고 이론을 강의하여 표층구조인 사회에 심층적인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변하지 않는 실체를 확인하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의 좌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대학이 해야 할 일은 그러나 이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의 지표도 설

정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부단히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회 현실을 도외시한 미학 학문은 고물상에 지나지 않는다.

문학교육도 이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특히 현대문학일 경우는 두말할 여지가 없다. 현대문학은 항상 현대와 같이 살아 숨쉬고 있어야 한다. 대학이라고 해서 과거에만 집착하면서 상아탑이란 미명하에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대학은 고등학교와 다르다. 고등학교가 규범적이라던 대학은 이 규범을 파괴하고 새로운 규범을 세우는 곳이다. 고등학교가 규범에 얽매어 죽은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면, 대학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 규범을 만들고, 살아 있는 교육이 되도록 고등학교를 선도해야 한다.

문학교육에 한한 한, 대학과 고등학교는 규범에 고착되어 있다는 면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대학도 고등학교와 다름 없이 이미 정평이나 있는 작품만을 타성적으로 교육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품을 선정할 때 문학사적 관점에서 선정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문학사적 관점이란 문학을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파악하고, 그 흐름에 따라 작품을 재평가하는 작업이다. 과거의 명작도 새로운 문학사적 관점에서 가치가 덜한 작품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이 역도 성립한다. 또한 문학사적 관점은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말은 과거를 거울로 삼아야 하지만, 현재에 비춘 과거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문학사적 관점이 정립되어 있다면 그 그물로 모든 작품을 심사해야 한다. 그래서 의미망에 걸리는 작품을 자신 있게 새로운 규범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미학 국문과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다. 대학에서 과거의 규범에 얽매어 과거적 타성을 답습하는 것은 대학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다.

대학 교양국어에 수록될 작품은 대학 나름대로 새롭게 선정하여야 한다. 대학마다 국문과가 있는데, 그 대학 교수들이 자신의 관점에서 새로운 문학작품을 선정하여 교과서에 실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이상적인 것은 모든 대학의 국문학 교수들이 한국 문학 연구에 동참하면서 공동적인 문학사적 재정립을 시도하는 것이다. 하여

대학 전체가 이런 통합된 관점으로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이상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나 현대 작품에 와서는 이론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작품이 문학사적으로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5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일설을 참고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현대문학 연구를 되돌아볼 때, 대체적인 윤곽이 잡혀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커다란 윤곽을 전제로 하면서 대학마다 자신의 관점에 따라 현실과 유리되지 않은 살아 있는 작품을 교과서에 수록한다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리라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품 연대를 1980년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대학이 지닌 근본적인 속성 곧 상아탑적인 전통 때문에 1980년대를 꺼려 한다면 적어도 1960년대 이후 얼마까지만이라도 수용해야 한다.

국문학사적으로 볼 때, 시기별로 커다란 특징적 분류가 가능하다. 1945년 해방 후 6·25가 나기 전까지의 민족 해방과 재편성에 따르는 이데올로기적인 혼란, 6·25 이후의 전후 문학, 1960년대의 산업화와 그에 따르는 소외 문제 등이 그것이다. 1970년대 이후에는 다양한 문학적 탐색으로 관점에 따라 달리 그 특징이 기술될 수 있다. 그것은 각 대학 전공자의 관점에 맡길 일이라 생각한다. 해방 후의 문학과 전후 문학, 그리고 '60년대 문학은 어느 정도 국문학계에서 그 특징이 정리된 느낌이다.

따라서 교과서 내용에도 전후 문학과 산업사회에서 소외 문제를 다룬 작품들이 현대문학 작품으로 선정되어 수록되어야 할 것이다. '70년대나 '80년대도 문학사적 안목에서 정당하게 평가된 작품이 선정되어 정리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

이런 문학적 재편성이 있기 위해서는 선정 기준 또한 중요하다. 문학사적 관점이라고 말했는데, 문학사적 관점을 제시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문학을 평가하는 기준은 온건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것이 개인의 대표작을 선정하는 것이 아닌 문학사적 가치를 지니는 명작을 찾아내는 작업인 만큼 그 기준은 온건하면서도 타당하여야 한다.

문학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언어를 매체로 하여 예술적인 양식에 담아 표현하는 사회적 제도이다. 쉽게 말하면 내용과 형식을 지닌 유기체이다. 따라서 문학작품을 평가할 때는 이 둘을 동시에 살펴보아야 한다. 형식적 요건과 말하고자 하는 사상과 이들의 예술적 결합 상태를 주도면밀하게 분석해 보아야 한다. 형식을 살펴보는 이론이 형식이론이라면,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도덕이론이라 할 수 있다. 문학작품으로서 성공하려면 이 두 요건이 잘 조화되어야 한다. 교과서에 실릴 작품은 다른 것보다도 내용에 있어서 적절해야 한다. 대학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상응해야 한다. 이것은 곧 우리의 교육이념과 대학인이 가야 할 목표와 조응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윤리 교과서나 도덕 교과서에 준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것은 윤리 과목에서도 해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이론은 오히려 이보다도 더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다. 또한 이것이 민족의 역사적 현실과 조응시켰을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나 다난했던 현대사에서 현대문학은 이 쓰라린 역사적 현장과 밀착되어 형성되어 왔기에 이에 대한 해답은 어떤 자료보다도 생생하게 역사를 증언하고, 우리의 나갈 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본다.

도덕이론에 따르는 형식적 형상화 또한 문학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기실에 있어서는 형식이론에 앞서는 것이기도 하다.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고는 문학은 문학이 될 수 없겠기 때문이다. 형식이론의 과정은 장르의 변화나 관례(convention)의 변화까지도 세심하게 주의해야 할 것이다. 문학은 내용에서보다는 관계에서 더 많은 변화를 보이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이다.

이런 도덕이론과 형식이론이 잘 조화된 작품을 선정하여 새로운 교재 내용으로 재편한다면 배우는 학생들은 현실과 유리된 교목이 된 문학을 대하지 않고 살아 있는 현장감 있는 공부를 하며 흥미 있는 대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 고 생각된다.

4. 專攻教授에 의한 학문적 전문성

대학은 최고 지성의 산실이다. 한 나라의 석학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바라는 것은 고등학교에서 못 다한 지적인 욕구를 유감 없이 충족하는 것이다. 각 학문마다 권위를 자랑하는 교수들이 자기의 도도한 이론을 설파하는 곳이 대학이라면 학생들은 그런 전문지식을 목말라 하여 대학에 진학한 것이다.

교양교육도 이러한 기본적 속성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교양교육이라고 해서 인생담이나 들러주는 안이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생담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私的이다. 교양교육도 학문적인 전문성을 밀바탕으로 해야만 한다.

작품을 새롭게 선정하여 교과내용을 참신하게 했다면 그에 따르는 강의 또한 이에 뒷받침되어야 한다. 문학이라고 해서 감상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읽고 넘어가는 정도라면 대학에서 교양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 원리적인 설명과 고도한 감식 능력을 계발해야만 한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가르치는 능동적 행위자인 교수에게 요구되는 사항들이다. 교수가 전문적이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볼 때, 교양국어는 각 분야의 전공자들이 같은 내용을 공동적으로 강의하고 있다. 어학이나 고전문학, 현대문학 전공 교수들이 동일한 내용을 맡아 교양국어로 강의하고 있다. 이런 여건하에서는 전문성을 찾을 수 없다. 특히나 최근의 문학작품일 경우에는 당황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혹은 윤리적, 전통적 사교나 경색된 고정관념 때문에 거부반응을 보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현대문학 강의는 전공 교수가 맡아야 한다. 가급적이던 시와 소설까지도 세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할 때만이 현대문학은 교양으로서 자리를 굳히게 될 것이다. 전공자가 강의하면 같은 말이라도 좀더 이해하기 쉽게 강의할 수 있다. 완전히 숙지한 사람만이 쉽게 풀어 이해하기 좋게 강의할 수 있다. 난삼하게 강

의하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문제는 교수요원의 수에 있다. 각 대학마다 전체 학년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현대문학 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시간 강사로 충당하는 방법도 있으나 대학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실정이다.

그렇다면 과거에 해 온 통상적인 방법으로 교양국어 교실이 운용될 수밖에 없는데 새로운 방법은 현실을 감안하여 그 개선책이 모색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방법이라기보다는 원론적인 방법의 재강조라 해야 맞을 것이다. 그것은 강의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타전공 교수들이라도 전공 교수에 준하는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강의 준비를 한다는 의미이다.

통일된 방식으로 공통적인 내용을 강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명확히 확립되어야 한다. 강의 내용이 되는 기준점이 설정되어야 하고, 그를 준거로 하여 전 학년에 그에 맞는 강의가 실시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그 기준점을 나름대로 제시하여 교양교육으로서의 문학교육의 지침 마련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문학은 언어로 되어 있다. 문학작품이란 일상 언어를 새롭게 재구성하여 미적 효과를 나타내는 특수 조직이다. 따라서 문학작품은 그 자체로서 고유의 법칙을 지닌다. 문학이 사용하는 언어가 인간 경험의 총체, 즉 사물, 사람, 사람의 행위, 느낌 등, 그리고 그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사회적 도덕률의 지배하에 있는 것은 아니다. 문학은 예술작품으로서의 고유의 법칙에 따를 뿐이다. 문학이 사용하는 언어가 사회적 내용을 담은 점에서는 도덕률과 연계되지만 문학이 문학으로서의 특성을 지니려면 문학 나름대로의 자체 법칙이 있어야 함은 필연이다.

문학교육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점은 바로 이 형식 요건이다. 문학이 문학과와질 수 있는 특수성을 학생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이것은 문학을 미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근거가 되며, 또한 문학을 흥에 겨워 하면서 접해 갈 수 있게 하는 요건이 되기도 한다.

문학은 사회적 효용에서보다 문학을 읽는 재미로부터 출발해야지만 흥미롭게 접해 갈 수 있다. 그렇다고 효용과 쾌락이 동떨어져 존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논의의 편의상 분리시켜 논할 뿐이다.

문학이 문학과와야 하는 근거를 제시한 문학 이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유구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을 모두 서술하는 대신, 본질적인 것만을 가려내어 교양국어의 문학교육에 필요한 지침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

문학의 형식적 특징 중 일차적으로 살펴야 할 기준은 그것이 완전하게 짜여져 있으며, 우리가 경험하는 잡다한 일상과는 다른 어떤 통일된 경험세계의 표출이냐 아니냐의 여부이다. 문학작품은 잡화상처럼 단편 조각을 아무렇게나 쌓아 놓은 무질서한 세계가 아니다. 부분이 전체를 이루는 조각임에 틀림없지만 그 부분은 전체와 상호 조응하면서 서로 완전하게 짜여져 있어야 한다. 문학작품은 일상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질서정연한 또 다른 세계이어야만 한다. 시작과 끝이 없는 진부한 삶에 질서를 부여하고 시작과 끝이 명료하게 제시되어 하나의 완결된 경험세계를 형상화해야만 한다. 이것은 작품 선정에서도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그것을 강의할 때에도 새롭게 강조되어야 한다. 미적 체험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살펴야 할 것이 조화성 여부이다. 이것은 완전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문학작품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구조적 짜임에 의한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모든 작품이 구조적 짜임만 완전하다고 통일적인 인상이나 완전한 작품적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주제와 분위기의 조화에 더 의존할 수도 있다. 플롯의 힘보다도 내재적인 인력으로 작품을 완결시켜 주는 이런 조화감은 문학이 문학과와할 수 있는 관건이 되기도 한다. 이 조화란 말에는 균형 감각이 내포된다. 작품으로서 일관성 있게 균형이 유지되었느냐의 여부이다. 문학은 자체적으로 완결된 유기체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에 전제되었을 경우 조화는 바로 문학이 문학과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열쇠가 된다. 조화란 말 속에는 부분 부분의 결합에 있어서 각 부

분이 전체에 맞게 강조되었느냐 하는 의미도 내포된다. 명암이 잘 처리된 그림이 입체감을 주고, 그에서 사실감과 함께 새로운 미적 세계를 체험하듯 문학에서도 각 부분은 적절히 조화되어 박진감을 불러일으켜야만 살아 있는 문학이 될 수 있다. 일상 경험에서 접하는 개개의 사물이나 사건은 그것 하나 자체로 완결된 것이기는 하나 내개는 균형이 맞지 않는 부조화로 이루어진 것이다. 문학작품을 대하면서 완전하고 통일된 조화의 균형의 아름다움을 접하게 하고, 그에게서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문학교육에서 필수적인 항목이다.

다음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은 구조적 짜임이나 부분과 전체의 조화라는 유기체적인 전체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 자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오히려 앞서보다도 더 분석적이고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 언어감각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과 전문적인 식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비하기조차 한 문학 교유의 언어 조직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미적 효과이기도 하다. 그 나라 고유의 언어미 속에 녹아져 있는 매력점을 찾아내어 강의 시간에 밝혀 주어야 하는 요소들이다. 예를 들자면 번역하거나, 개념으로 서술하면 사라져 버리는 어떤 것, 또는 공리적인 일상용어의 표현법으로 나타내면 없어져 버리는 어떤 것, 곧 언어 표현에 미적 구조로 녹아져 있는 문학만이 지니는 불가사의한 힘이 바로 그것이다. 문학만이 지니고 있는 빛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빛은 고상한 문학일수록 찬연히 빛날 것이고, 저급의 작품일수록 퇴색된 채 녹슬어 있을 것이다. 문학 강의에서는 이 빛을 잘 찾아 내어 학생들이 감수성으로 직접 체험을 통해 감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학을 읽는 재미의 고등한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형식적 요건이 강의되었다면, 이것을 전제로 내용 파악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 파악이란 형식과 미칭 개념으로서의 주제 파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더 근본적인 문제인 문학의 법칙이 인생을 지배하는 법칙과 같음을 의미한다. 문학과 인생의 법칙에 의해 통제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런 관점에서 보던 문학이 인생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삶에 기여하지 못하는 문학은 존재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다.

작가나 시인이 작품을 쓰는 것은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가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다. 언어는 사회적 경험으로 충만되어 있다. 그런 사회적 약속으로 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미 문학이 사회적이고 사회적 삶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나타낸다. 작가가 자기의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려 하는 것은 자신의 판단에서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것들임에 틀림 없다. 문학교육에서는 이러한 도덕적 유용성도 또한 중요한 덕목으로 처리하여 강의되어야 할 것이다.

도덕적 유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우선 작품이 그러한 덕목들을 옹기 지니고 있으며 또한 그것은 무엇이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곧 문학은 도덕적 판단 기준을 모범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면서 애써 쟁취해야 하는 미덕들과 피해야 할 악덕들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 주어야 한다. 문학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면서도 일관성 있는 이러한 모범적인 규범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점을 스스로 깨닫게 하여 자기의 행동의 지표를 스스로 세워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로 볼 때 올바른 문학이라면 문학작품 자체 내에 도덕적 판단을 할 자료를 충분히 지니고 있고, 문학을 접하는 학생들이 이를 통해 자기의 도덕적 경험을 확대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문학 아니라도 도덕적 덕목이 제시된 학문이 많다. 윤리나 철학, 역사 등의 학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학문을 통한 배움은 추상적이고 지적일 수밖에 없다. 도덕은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도덕적 덕목을 명석한 두뇌로 이해한 사람일지라도 행동에서는 비도덕적일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도 사실이다.

문학에서 얻을 수 있는 도덕적 경험은 그것이 지성을 통한 추상이 아닌 구체적 경험과 상상적 체험을 통한 감동이라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머리로만의 이해가 아니라 가슴으로의 감동적 받아들임이기에 행동화할 수 있는 행위의 변화를 약속하게 해준다. 문학교육에서는 이런 감동을 전제로 한 행위의 도덕적 변화를 분명히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인간으로서 바르게 사회에 나가 활동할 수 있고, 또한 교양인으로서 사회가 요청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을 통해 얻은 이와 같은 도덕적 체험은 실생활에서 얻은 그것보다도 더 심원한 것일 수 있다. 문학은 무질서한 현실 경험을 질서화시켜 제시한 것이기에, 또한 보다 광범위한 영역을 긍하기 때문에 문학을 통한 체험은 우주적 원리에까지 뻗치게 된다. 이러한 원리를 깨우치면 실생활의 좌표도 이에 준하여 설정하게 되고, 또 누구보다도 조화롭게 실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 명실상부한 교양인이 되는 것이다.

문학을 통해 우주적 질서를 깨닫는다는 의미는 우주 자체가 어떤 도덕적 원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학이 예로부터 자연의 모방이라고 일컬어져 왔는데 자연을 완전하게 모방할 수 있다던 그 자체가 벌써 도덕적 원리를 반영한 셈이 되는 것이다. 이 자연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고선인 동시에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기도 하다. 문학의 원리는 형식이전 도덕물이전 중국에는 자연에 귀결된다고 보아야 한다. 문학을 가장 커다란 범주로 포용하는 원리는 자연의 원리이다.

다음으로 살피야 할 것은 문학과 사회와의 관계이다. 문학이 도덕적 원리를 제공하여 인간을 올바르게 살게 한다면 그것은 분명 사회생활 그 자체일 것이고, 이 사회생활과 문학과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맺어져야 함이 밝혀져야 하겠기 때문이다. 곧 이것은 문학이 사회에 대하여 말하는 형식을 취하는가 아니면 반영하는 형식을 취하는가를 따져보는 것이다. 여기서는 문학의 의사전달의 수단임을 전제로 한 말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란 관점을 택하고 싶다.

문학이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면 모방론적 관점이 되어 마르크스적 문학론이 될 소지가 많다. 어떤 특정 계급의식을 반영한다는 논리이다. 그

러나 문학은 작가의 소산이다. 작가는 어떤 계급의식을 수동적으로 반영하는 피동체는 아니다. 능동적으로 자기가 할 말을 찾아 어떤 대상을 상대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주체이다. 문학이 사회이론과 만날 때 이런 전제를 항상 유지해야만 할 것이다. 반영이라면 그 계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문학은 어떤 특수집단의 선전도구일 수는 없다. 실제에 있어서 위대한 문학가들은 어떤 특수한 소집단만을 상대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다. 문학이 소집단의 계급의식의 반영이란 관점을 견지할 때 그것은 기계론적 폐쇄성을 면하지 못하게 되고 문학은 문학 본연의 설 땅을 잃게 된다. 이 점은 특히나 교과서에 실린 작품이 경향적이거나 아니면 경향적인 작품을 제외시켰을 경우 학생들로부터 받게 될 질문에 응하기 위해서도 고려해야 되리라 본다.

5. 맺음말

지금까지 필자는 우리 문학교육의 문제점을 교양국어론 중심으로 살펴, 그 대책과 강의 내용의 이론적 근거까지 찾아보려 노력하였다. 교양교육에서의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차대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여기서 제시한 방법은 매우 기초적이고 어찌 보면 상식적인 것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것이 실제로 알면서도 행해지지 않고 있다는 그 점일 수도 있다.

문학작품이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이 감상 위주로 강의되고 학생들은 그것이 문학을 독해하는 전부인 양 착각한다면 그것은 교양교육으로서의 문학교육에 있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문학작품은 선정에 있어서나 강의에 있어서나 앞서 제시한 형식과 도덕적, 사회적 기본 요소들이 가치기준으로 적용되어 교육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이들 요소가 분리된 것이나 양 개념적으로만 적용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들이 변증법적으로 종합되어 불가분리의 명실상부한 유기체로 파악될 때 문학교육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